

동네조폭 단속 두달 근절 의지 안보인다



**광주·전남경찰 114명 검거
구속 45명…6곳은 실적 ‘제로’
보복범죄 우려에 신고도 꺼려**

■황모(47)씨는 광주시 동구 총장으로 일대 노점상·식당 여주인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총장으로 상인들을 괴롭혀왔다. 노점상에게 자릿세를 내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식당에서 탁자, 의자를 던지고 손님을 내쫓거나 위협하기도 했다. 황씨는 최근 경찰청의 ‘동네조폭 특별단속’에 걸려 구속됐다.

광주·전남 경찰이 노인과 영세 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괴롭혀온 동네 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44명을 적발, 45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불법 유흥업소가 피해를 당해도 범법 행위가 발각될까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 행정처분을 면제키로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고를 독려했음에도 면책 업소가 거의 없는데다, 경찰의 조사 뒤 다시 ‘본거지’로 돌아간 경우도 많아 시민들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19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검거된 동네조폭은 광주 65명,

전남 49명 등 모두 1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양동시장과 상무·금호지구 등 서민들과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서부경찰이 20명을 검거해 가장 많았다. 광산경찰 17명, 북부 15명, 동부 7명, 남부 6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시 동구 금동 주민 30명은 경찰에 ‘무법자’로 통했던 김모(56)씨에 대해 직접 쓴 탄원서를 냈고, 양동시장 상인회 275명은 “만원만 빌려달라”며 장사를 수시로 방해한 오모(62)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남에서는 21개 경찰서 평균 검거 인원이 2.3명 수준에 머물렀다. 목포에서 18명의 동네 조폭이 경찰에 검거됐고 순천의 경우 7명의 동네 조폭이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모두 49명의 동네 ‘양아치’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담양·보성·완도·진도·화순·곡성 등 6개 지역에서는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 조폭’ 검거 건수가 전혀 없었다.

경찰의 ‘동네조폭’ 단속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경찰이 검거한 동네조폭 중 구속된 경우는 광주 22명, 전남은 23명에 불과하다.

경찰 발표대로라면 검거된 동네 조폭들은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빈번하게 괴롭혀온 ‘악당’들인데, 상당수 ‘동네조폭’들은 급세 풀려나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식당·슈퍼마켓 등에서 온갖 횡포를 부려 이른바

농성동 일대에서 ‘놀부’로 불려온 허모(60)씨는 동종 전력이 37차례에 달하지만 경찰 조사를 거친 뒤 풀려났다. 이 때문에 또 다른 갈취·협박 행위로 이어지는 등 보복 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의 단속과 수사가 ‘용두사미’식으로 그칠 것에 대한 불신감도 여전하다.

경찰이 애초 자신의 범법 행위가 발각될까 우려해 피해 신고를 꺼리는 불법 유흥업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착안, 경미한 범법행위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면서까지 신고를 독려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조건부 불입건·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노래방 업소 등은 고작 7곳(북부·광산)에 불과했다.

경찰 단속은 특별 단속기간에만 집중되는 등 ‘일회성’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반면, 이들 동네 조폭들의 상습 공갈·협박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전직 경찰간부가 400억대 보이스포싱 사기

서민 2만여명 주머니 털어…대출 미끼 40억 챙기기도

광주지검, 현직경찰·전직 프로야구선수 등 53명 입건

전직 사이버사수 담당 경찰이 운영하는 조직원 100명 규모의 거대 보이스포싱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 금융 정보를 손쉽게 사들이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에 발신번호 변조서비스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총동원해 무려 서민 2만여명의 주머니를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포싱 조직 상당수가 중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 간부급이 대거 붙잡혔지만, 사실상의 수괴(首魁)인 보이스포싱 총책은 이번에도 검거되지 못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9일 중국·필리핀 등에 ‘대출상당 콜센터’를 차려놓고 저축은행을 가장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거액을 갹권 혐의(사기 등)로 모두 53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보이스포싱 조직 우두머리 A(42)씨 친동생으로 자금관리책임 B(39)씨 등 26명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 조직원 부탁을 받고 수배 여부를 조회하는 등 도움을 준 현직 경찰관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조직원 21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나머지 가명을 쓰는 조직원 50여명의 검거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저축은행 대출 상담을 미끼로 2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인지세 등 명목으로 4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일 환전금액,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총 피해 금액은 400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만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국내에서 적발된 역대 보이스포싱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에게 속아 4000만원을 송금했던 사기 피해자 중 1명은 음독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저축은행 대출 거절자 명단이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중국 해커에게 사들인 뒤 콜센터를 통해 보이스포싱 사기를 발였으며 피해자 유인·현금인출·송금·인력모집·교육·대포통장 모집 등으로 역할을 나눠 기업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따거(大哥)’로 불리는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상당수 간부가 외국인들로 구성됐던 기존 조직과 달리 남매인 광고모델, 전 프로야구 선수, 연예인 매니저, 조직폭력배 등 조직원 대부분이 내국인이라는 점에서 국내 보이스포싱 조직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리핀으로 달아난 총책 A씨는 한때 서울 지방경찰청 소속 경위로, 지난 2008년 비위로 해임됐으며 사이버 범죄수사대에서 보이스포싱 수사를 한 경험과 인맥을 범죄에 적극 활용하는가 하면, 정부의 ‘보이스포싱 피해 방지대책’을 역이용해 범행수법을 개발하고 자신이 수사했던 피의자 3명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인적사항이 파악된 조직원 21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인터폴 등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화재진압 훈련

19일 오후 광주시 남구청 광장에서 열린 남부소방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청사 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수를 뿌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기아차 채용사기 피해 최대 70명 달할 수도

광주경찰청, 전 노조간부 조사

2년동안 5명 가량 모집책 동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의 채용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피해자가 최대 7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인 생산직 직원 A(34)씨가 여러 모집책을 동원해 최대 70여 명에게 돈을 받아 행간 정황을 포착,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년 동안 5명 가량의 모집책을 동원, 노조 간부 출신임을 내세워 채용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5000만 원 안팎을 받아행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난해 6월에 총 400여명의 생산직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집책을 활용, 채용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아차 생산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채용해주는 댓가로 1억원을 건넸으며, 채용이 성사되면 50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는 말이 떠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나아가 A씨를 돕는 5명 안팎의 모집책이 주변인을 채용사기 상대로 끌어들이며 최대 70명이 30억 원 가량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찰도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 같은 채용사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날까지 10명 가량의 피해자 및 알선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회사 고위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노조 전 간부 사실을 내세우며 모집책까지 동원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와 모집책, 피해자 등 10명 가량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는 노조 및 회사 측과의 이번 사건의 연관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고물상에 팔려고 정보지 가져갔다가…



○…고물상에 팔 목적으로 길가에 버지던 생활정보지를 가져간 70대 할머니가 경찰서행.

○…1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고모(여·75)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자산동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택시승강장 주변 일대 5~6 곳에서 생활정보지 18부를 가져가 인근 고물상에 팔려 했다는 것.

○…한 생활정보지 업체 소속 관리인 천모(46)씨의 신고로 붙잡힌 고씨는 전에도 같은 일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1kg에 100원씩 하는 신문지와 고물을 팔아 월세와 생활비로 쓰려했다”고 진술.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뒤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4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 3억5000만 가, 보 2억에 월 270만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우리공인중개사 김종범

친절상담 H. 010-8589-5500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사정상급매

■ 29평 -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 수리

시 세 - 1억원 정도

매매가 - 75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주인직매 H.010-3180-8900